

여성학 입문 : 포스트모던 시대의 여성

제8강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여성이 나아갈 길

강사 : 박남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여성이 나아갈 길 ①

◆ 여성의 책임

※ 학습목표

여성에게 주어진 자신과 사회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 여성학의 지향점

본 강의는 ① 왜 우리는 여성을 문제 삼는가 ② 현재 여성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③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서 여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 왜 우리는 여성을 문제 삼는가

이 시대에 여성을 문제 삼는 이유는 정치, 경제, 문화, 인종의 소외는 문제 삼았지만, 한 번도 성적 차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성적 소외의 관점에서 여성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여성의 문제는 그동안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구조 속에서 같이 파생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 것이다. 이 때 여성의 문제를 하나의 현상적 차원에서 다루기보다, 본질적인 문제로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 여성학의 지향점

어떻게 하면 성적 소외라는 깊은 뿌리를 근절하고, 누가 누구를 차별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새롭고 건강한 사회라는 나무를 키워낼 수 있을까. 요즘은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을 문화라고 한다.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창조자로서의 여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여성만의 문화를 고착화하면 역차별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남성학이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학의 목적은 여성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도 되는 세상이다. 여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문을 하거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성학의 지향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여성학은 대안으로 정형화된 틀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 다른 소외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대신 여성이 사회와 더불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 여성 주체성의 확장

머리카락은 머리에 달려있을 때는 아름답고 쓸모 있는 것이지만,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닐 때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 어디에 있느냐, 즉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현상을 읽어내는 시선을 달라져야 한다. 여성학도 현실성과 역사성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여성문제를 읽어내야 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다. 먼저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간 여성은 한 번도 주체로서 타인과, 사회와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체성을 회복했다. 그런데 주체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게 되면, 다른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전체를 어그러뜨린다. 나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체가 되고자 함은, 나임과 동시에 사회임과 동시에, 전체임을 자각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체라는 것은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유한적인 것임과 동시에, 전체와 맞서는 대단하고 무한한 존재다. 레비나스는 주체의 책임에 대한 윤리를 무한히 전체로 확장시켜나간다. 여성도 자기의 주체성을 이렇게 전체로 무한히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 현재 여성의 모습 비판

여성이 주체성을 확립하고 관심의 영역과 행동의 범위를 확장해나가면, 남성과 더불어 온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주체성을 되찾은 우리 여성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성 안에서 다시 질문하고 비판해보자. 대학에 가보면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과도하게 꾸미고 다니는 여학생들이 부지기수다. 학교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외적인 것에 치중하느라 시간낭비, 물질낭비를 하는 것이다. 남의 시선과 유행을 의식하는 이런 행동들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진 남성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손발톱을 관리하고 네일아트 등으로 꾸민다. 그리고 그것이 망가질까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삶 자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성숙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휴대폰이나 이어폰 등으로 소음을 내는 여성들을 볼 수 있다. 최소한의 교양,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이제 여성들은 하나의 온전한 주체가 돼서 타인을 배려하며,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자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이다.

▲ 여성과 소비

우리나라 현실에서 소비는 대체적으로 여성 쪽에 비중이 있다. 그래서 CF도 소비의 주체인 여성을 겨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들이 건강한 소비를 한다면 지구나 자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소비의 패턴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소비를 보면 필요에 의한 소비도 있지만 이미지를 위한, 소비를 위한 소비가 굉장히 많으며 각종 매체에서는 이것을 부추긴다. 여성잡지라는 것은 광고와 명품에 대한 것, 가십거리로 가득 차있다. 여성에 대한 편견만 가중시키는 이런 문화를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이런 소비의 부추김은 망국의 지름길이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삶으로

※ 학습목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여성의 삶을 모색한다.

▲ 여성을 향한 산업

요즘 우리나라에서 성행하는 산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마사지, 목욕, 찜질방 등이 있다. 학습 교재, 부동산도 여성의 관심과 소비의 대상이다. 또 웰빙과 자기관리를 표방해서 요가, 다이어트, 패션산업도 성업 중이다. 요즘에는 아예 다이어트, 요가, 마사지, 성형을 전부 관리해주는 토털 매니지먼트가 등장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은 이렇게 여성을 겨냥해 여성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 양성형 인간의 대두

요즘은 양성형 인간이 부각되고 있다. 이전에는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해서 요구했다고 하면, 요즘은 양성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여성의 장점만 가지고는, 사회에 능력 있는 인간으로 접근하기 수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안에 남성성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 키워내지 않았던 특성들, 예를 들어 추진력, 모험심 등을 사회는 이제 여성에게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여성이 우물에서 나와 세계로, 더 나아가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우주로 나가야 한다. 여성에게는 보살핌의 윤리도 있지만 정의의 윤리도 있다. 사회의 정의를 물어나가는 것이 여성들에게 필요한 태도다. 반대로 남성은 여성의 보살핌의 윤리를 가져야겠다. 양성적인 인간이라는 것이 검은색과 흰색을 섞어 회색인간을 만들자는 논리는 아니다. 생물학적 특성과 차이는 지키면서 양성의 미덕을 갖추자는 것이다.

▲ 창의성을 발휘하자

이제는 백마 탄 왕자가 찾아오는 시대가 아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읽어내야 한다. 이제 능력 없는 여성은 오히려 시집도 못 간다. 그런데 지금 여성들의 모습은 하는 일도 없이 휴식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사이에 갖는 휴식의 달콤함을 누릴 줄 아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 이전에는 여성들은 독창성,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이 적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성이 해내야 남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유행에 이끌려 다니기보다는 유행을 선도해야 한다. 모든 것을 갖춘 남성을 만나려는 이성관, 결혼관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학연, 지연 등의 인맥에 의존하는 태도와 그릇된 애국심을 버리고 지평을 넓히게 되면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다.

▲ 연탄재에서 돌아보는 삶

연탄불이라는 글이 있다. 남김없이 스스로를 태운 연탄은, 그 재로 빙판길의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등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타다 만 연탄은 부서지지 않는다. 쓸 데가 없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엇인가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부어 남김없이 자신을 불태운 사람은 후회가 없다. 또 그 후 사회를 위한 헌신으로, 원천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미지근하게 이도저도 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타오르는 듯 열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태울 것인가. What, 여성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이것은 가족이나 남성, 사회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How, 목표를 정했다면 어떻게 태울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다. 연탄을 태던 시절 우리네 어머니들은 두꺼비집으로 불구멍을 여닫으며 불을 조절했다. 또 아궁이에 주전자를 올려 물을 덥혀 목욕을 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의 지혜처럼 우리도 자신의 역량과 개성에 목적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단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 장애가 아닌 디딤돌로

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오자 A는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고 걸음을 멈춘다. 그러나 B는 디딤돌로 여겨 뛰어서 건넌다. 현실의 한계를 느끼고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며 자포자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를 디딤돌로 인식하고 건넌다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다. 힘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장애가 없고 순조롭기만 한 것이 과연 좋을까. 어려움 없이 햇볕과 물을 잘 받고 자란 나무는 쭉쭉 크지만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진다. 그러나 찬바람 더운 바람을 번갈아 맞으며 자란 나무는 단단하게 자라 쓰러지지 않는다. 과일도 적당히 풍파를 겪은 과일이 더 맛있는 것처럼. 우주 안에 작동하는 작용과 반작용을 잘 끌어들이어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어진 장애에 굴하지 말고, 그것을 딛고 오히려 자기 역량을 기르는데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여성이 나아갈 길 ②

◆ 여성과 교육

※ 학습목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현실, 교육받은 여성들의 사명에 대해 알아본다.

▲ 고통의 승화

힌두교의 계급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등을 내세우며 등장한 것이 불교다. 당시 인간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은 대거 불가에 입문한다. 석가모니는 고(苦)를 많이 짊어질수록 깨달음에 이르기 쉽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오히려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남성들에게는 세상이 살만하다. 그러나 여성은 사회에 의해 억압당하고 인내를 강요받고 고통 받는다. 그래서 고집멸도로 가는 길이 남성보다 수월하다. 고통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진다면, 고통에 의해 낙오되기보다는 그것을 승화시켜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상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여성이 삶을 바꾸어나가면 결국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가치관도 바뀔 것이다.

▲ 교육받은 여성의 사명

모든 여성이 세상을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받은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다른 여성들이 닮고 싶어 하는 바람직한 여성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육받은 여성들의 의식수준은 그 사회의 여성수준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교육받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혜택만 챙기는 모습을 종종 본다. 그런데 후진국으로 여겨지는 파키스탄이나 이슬람권의 여성들을 보면 공직 등 사회에서 한 사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또 우리 사회는 교육받은 여성들이 현모양처, 착한 며느리 등으로 상징화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여성상은 공황상태다. 교육받은 여성들의 의식은 결국 기존의 가치관을 재교육받은, 이데올로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이 여성에게 주는 손해는 제로였다. 이제는 여성의 교육이 여성학을 근거로 여성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 현 교육의 문제점

대학을 나온 여성들은 많다. 그러나 대학교에 다니는 여성은 많은데 대학생 같은 여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대학이란 무엇이나고 질문 받은 적이 있다. 대학은 스스로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정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곳이 아닐까. 또한 교수들은 학생들이 끊임없이 자극받을 수 있도록 공을 주고받는 듯한 교육을 펼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대다수다. 주체로서의 여성이 자기 삶을 만들어가도록 훈련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을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식에 대한 전환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여성성과 남성성의 고른 발전

사회에는 남성과 여성이 섞여있다. 그런데 여성의 시선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반쪽사회다.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성/남성으로 태어났지만, 한 인간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은 공존한다. 이것을 한쪽만 키워내는 것은 반쪽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키우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살아있음이다. 정형화

되지 않고 늘 새롭게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눈도 가져야 한다. 사회 전체가 이런 인식을 가져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사람은 서로 인정할 때 존재가치가 생기기 때문이다. 상대가 양성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정하고 배려해야 한다.

▲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

멋진 남자가 뚱뚱한 여자와 손을 잡고 가면서 사랑스러워 어쩔 줄을 모른다. 그것을 보는 우리의 느낌은 어떤가. 뭐가 예뻐서 저럴까 싶다. 그러나 외모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한 시선으로 보니 그 여자가 아름다운 것이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길게 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내면의 모습, 그때마다 달리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늘 아름답게 보인다. 우리 사회가 사랑을 잃어가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의 내면으로 서로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래서 여성이 성형 등 외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면, 그런 모습을 전파하면 다 같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새로운 사회다. 명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니 시간여유가 생기고, 외모에 투자하는 자원을 취미생활, 일상생활에 투자하면 생활은 즐거운 것이 된다. 그러면 회사에서 명퇴를 당하더라도 제 2의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 참여와 대화

사회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시선을 가지려면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은 강제가 아니라 참여다. 강제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낳을 뿐이다. 참여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잘못에 대한 비판, 정형화된 틀 속에 강제로 넣은 이데올로기는 시간과 더 불어 노후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지만,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새로움의 세계는, 비판이 그때그때 오히려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 아름다운 결실로 이끈다.

▲ 스스로에게 되묻는 여성문제

여성학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되묻는 작업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무효할 수도 있다.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여성학의 이론과 여성문제를 자기 삶에 끊임없이 적용해보고 되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눈앞의 문제밖에 못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남성들은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에는 남성들의 시선이 누적되어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러지 못했다. 눈앞의 문제가 가장 큰 줄로 여기는 것이다. 삶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남성은 절대로 여성의 전부가 아니다. 일단 그것을 극복한다면 그 다음부터의 극복은 갈수록 쉬워진다. 또 근시안적인 시야는 직업에서도 나타난다.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평생 보람을 가지고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은연중 남성에게 기대려고 하는 심리는 여성들을 생명이 짧은 단순직, 임시직을 선택하게 한다. 여성들은 달라져야 한다. 조삼모사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이 조금 다르게 살 방법을 궁리해보아야 한다. 세상은 넓고 멋진 것이며 할 일도 많다. 홈쇼핑에서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멋진 여성 사업가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남성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생리대 같은 여성용품조차 여성이 고안해서 여성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남성들이 기업을 만들고 상품화해서 만들어낸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생리대는 여성의 몸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화학약품처리가 된다. 또 생리대 광고에서 강조하는 것

은 깨끗한 이미지다. 이것도 따져보면 생리현상을 오염으로 보고, 순결하게 해야 한다는 하나의 신화다.

◆ 서로를 살리는 사랑

※ 학습목표

바람직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고,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의 원인과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

▲ 여성 CEO를 향해

한 남학생이 기존의 생리대를 불편해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생리대를 만들었다. 어머니에게 얻은 아이디어로 먼 생리대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시켜 사업을 벌였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당사자는 여성이지만 남성의 창의성과 추진력으로 만든 것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거리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여성 산업이라고 하면 수예나 꽃꽂이, 학습지 등이 전부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성들의 생각이 닿지 않은 곳까지, 여성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결혼 등을 이유로 기업을 만든다든지의 사회 진출을 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는 여성들도 사회와 산업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 나를 살리고 상대도 살리는 사랑

여성들은 끊임없이 남성들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상대방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살게 하는 것이 사랑 아닐까.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남성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것이다. 스스로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며 상대방도 살리는 것이다. 그럴 때 여성은 아름답다. 피곤에 찌든 얼굴을 해도 내 남자가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진정한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눈을 가진 상대를 선택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만남은 기다림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택받는 것도 아니다. 높이 나는 새는 구름을 만나지 지상의 쓰레기를 만나지 않는다. 높이, 깊이, 멀리 가는 사람만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것을 만나는 것이다. 높이 나는 새는 지상의 먼지 낀 바람이 아닌, 적도에서 생산해낸 산소를 북반구에까지 실어다 날라주는 바람, 그 바람과 만난다. 그렇게 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내가 키우는 것이다.

▲ 육체적 폭력으로 인해 영혼의 상처를 입은 여성에게

보통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이야기한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분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폭력을 당했을 때 직접적으로 당한 것은 육체지만 다치는 것은 영혼이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는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을 분리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는 이유는, 삶의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여성은 육체의 폭력이 영혼의 상처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막을 친다. 인간은 합리화의 동물이다. 유사시 합리화를 통해 상처를 완화하고,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육체의 폭력을 받았으면 육체의 문제로 끝내야 한다. 살덩어리에 가해진 것일 뿐이다. 인간의 의미는 육체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어나가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 어제 폭력을 당한 세포는 죽어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것이다. 영혼은 이전처럼 순결하고 고귀하고 다치지 않았다. 폭력을 당한 육체

가 새로워지는데 스스로 영혼을 멎게 할 필요는 없다.

▲ 여성에게 폭력을 쓰는 남성들의 심리

여성에게 폭력을 쓰는 남성들은 왜 그러는가. 여성들을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정신구조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라캉이나 프로이트가 분석했듯이 남성에게는 소유욕이 있다. 어머니로부터의 이탈로 인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를 되찾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있는 것이다. 남성에게는 여성에 대한 두 가지 감정이 있다. 여성에 대한 소유욕과 여성에 대한 그리움이 그것이다. 그리움이 소유욕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유욕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폭력이다. 남성의 정신 속에 내재된 이런 심리를 알고, 여성들은 자신의 상대를 간파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심리가 폭력으로 발동되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을 백마 탄 왕자님 같은, 환상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간과하다 상처받기 쉽다. 여성이 자신을 알아야 하듯 남성도 알아야 하고, 지혜롭게 조절하고 서로의 환자, 의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성관, 결혼관도 바뀌어야 한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내가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더불어 행복할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한다. 남성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삶,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체자. 그 역할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움이다.